

제 2 주제

세종시와 충남의 공동발전 방안

송 두 범

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

세종시와 충남의 공동발전 방안

송 두 범 |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

I. 머리말

- 2010년 12월 8일 국회 제294회 본회의에서 “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안”이 통과함으로써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지 약7년 만에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세종시 건설을 한층 더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
- 충청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충남도에 미치는 긍정적, 부정적 영향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선도자라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, 그 결과 “세종특별자치시”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음
- 이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뿐 아니라 연기군 전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출범하게 되었음
- 세종시는 대부분 충남도 행정구역내에 입지하고 있어, 세종시의 기능 및 도입시설의 변화는 충남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- 향후 2년 후에는 충남도의 행정구역이 아니라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출범하는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남도와 대등한 지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세종시와 충남도가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의 마련이 필요함
-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충청남도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어 충남도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,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승격이 법률로 정해진바, 상호간의 이해에 우선한 관계로 변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관계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.
- 아울러 2년 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지만, 지금부터라도 세종시 도시기능과 연계를 통해 충남도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, 지역경쟁력 강화의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
- 따라서, 본 글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계한 충남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종시 현황을 분석하고, 세종시와 충남의 공동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코자 함

II. 세종특별자치시의 현황 및 잠재력

1. 세종특별자치시 현황

1) 면적 및 인구

-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465.04km²의 규모로, 경기도 이천시와 비슷한 규모이고, 충남의 홍성군보다 크며, 청양군보다 작은 규모임
- 2010년 10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94,385명으로 경기도 동두천시와 전북 김제시와 비슷하며, 보령시보다는 약간 적은 규모임

〈표 1〉 세종특별자치시 현황

구분	면 적(km ²)				인구(명)	비고
	계	예정	주변	잔여		
계	465.04	72.91	217.39	174.74	94,385	2010년 주민등록인구
연기군	361.381	68.02	118.62	174.74	82,107	연기군 전체
공주시	76.315	4.89	71.42	—	5,648	21개리
청원군	27.35	—	27.35	—	6,630	8개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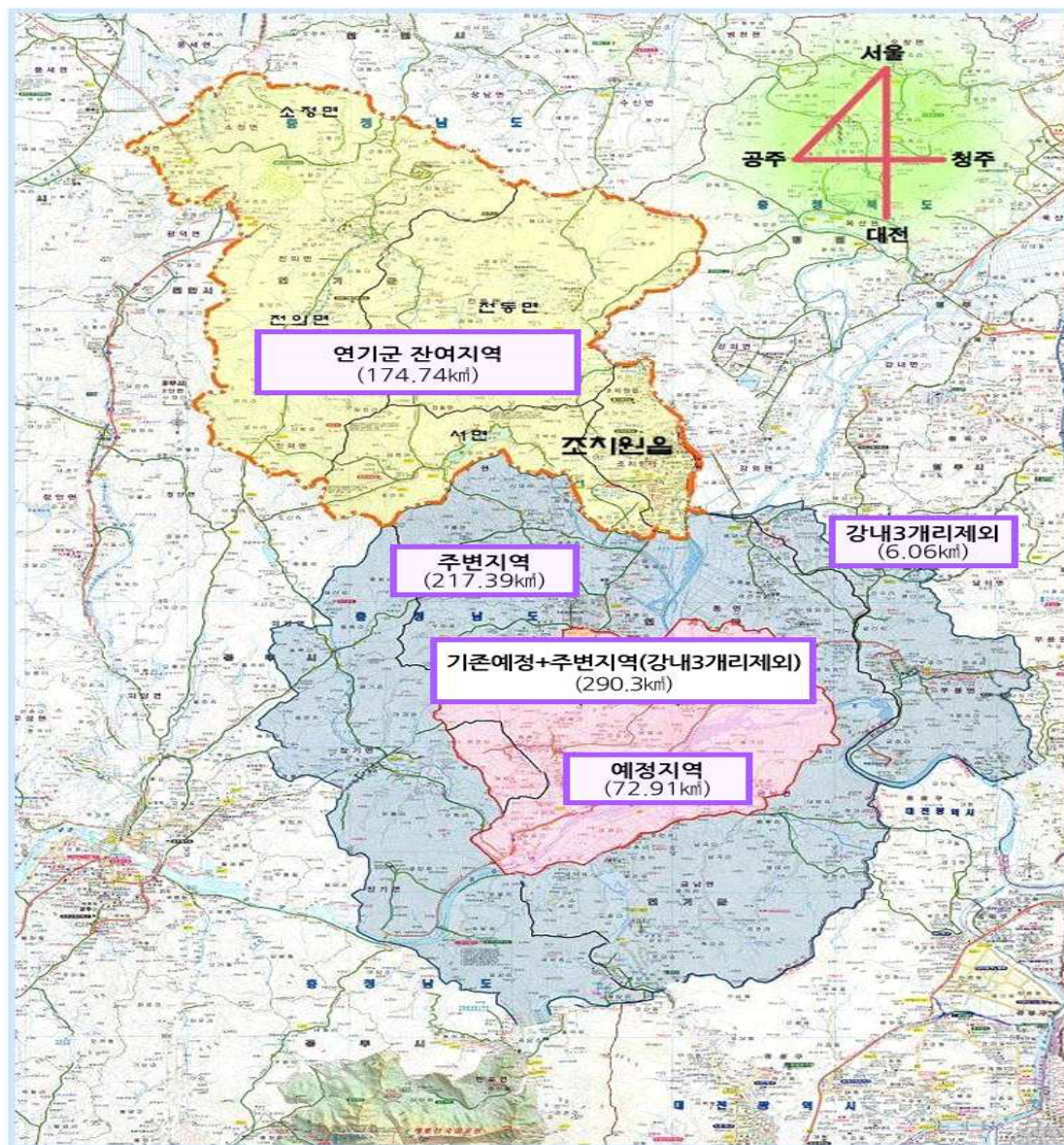
자료 : 연기군청(http://www.yeongi.go.kr/portal/popup/popup_20101208.html)

2) 행정구역

-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당초 행정구역은 연기군, 공주시, 청원의 9개면(일부)이었으나, 연기군 전체가 포함되고, 청원군 강내면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읍 11개면(일부)로 행정구역을 구성하게 되었음

〈표 2〉 행정구역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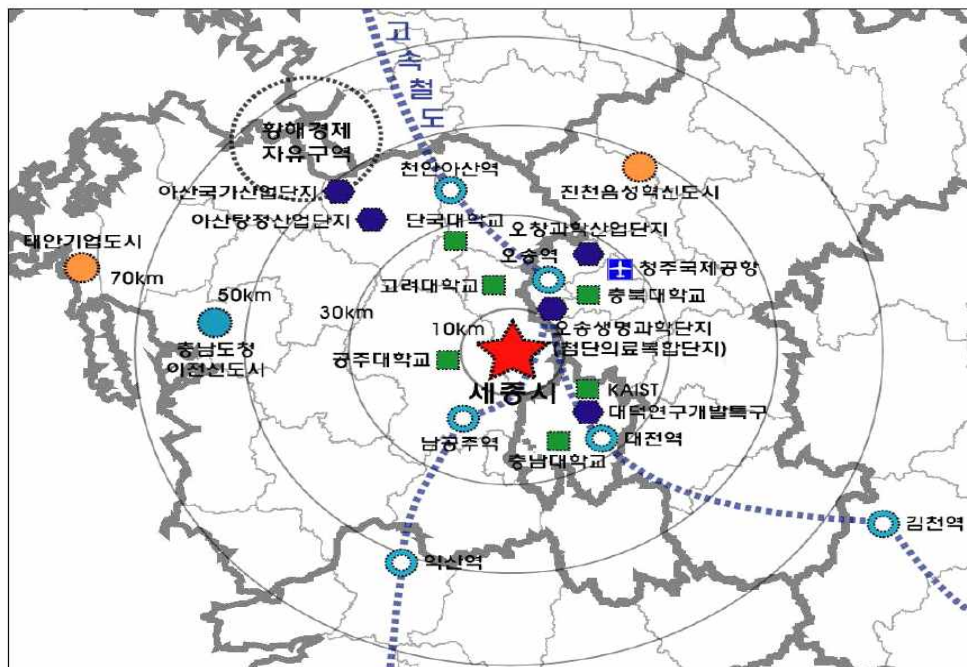
구 분	내용	포함지역
연기군	1읍 7개면 전체(215리)	조치원읍, 동면, 서면, 금남면, 전의면, 전동면, 소정면
공주시	3개면 일부 (21개리)	의당면 : 태산리·용암리·송학리·용현리·송정리 일원, 장기면 : 송문리·평기리·대교리·하봉리·도계리·봉안리·제천리·은용리· 산학리·당암리·금암리 일원, 반포면 : 원봉리·도남리·성강리·국곡리·봉암리 일원,
청원군	1개면 일부 (8개리)	부용면 : 산수리·행산리·갈산리·부강리·문곡리·금호리·등곡리·노호리 일원
계		1읍 10개면(일부)



[그림 1]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도

2. 세종특별자치시 입지잠재력

- 국토중심부에 위치
 - 서울에서 직선거리 120km, 대전광역시 및 청주시와 10km지점에 위치
 - 세종특별자치시를 기준으로 200km이내에 전국토 대부분이 포함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용이함
- 육로, 항공, 철도 등 교통인프라의 요충지
 - 고속도로, 고속철도 이용시 전국대부분이 지역에서 2시간 내외 접근가능
 -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는 10km이내 통과, 청주공항은 24km지점에 위치
- 산학연 네트워크 경제잠재력 우수
 - 대전대덕연구개발 특구, 천안-아산첨단산업단지, 오송생명과학단지, 오창과학산업단지, 카이스트, 충남대, 공주대, 고려대, 홍익대 등 교육여건 양호



[그림 2] 세종특별자치시 인근의 산업단지와 주요시설

- 수려한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자원 집적
 - 계룡산, 금강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백제문화권, 내포문화권, 중원문화권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

III. 세종시와 충남지역간 공동발전 필요성

1. 공동발전의 개념

- 지역공동발전은 상호의존성을 지니면서 발전함으로써 세종시와 충남지역이 서로 대립되지 않고 통합된 발전을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세종시가 충남의 다른 지역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이익이 되어야 함
- 지역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충남의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관계 구축을 통해 비생산적이고 중복을 피하며, 상호의존성을 발전시킴으로써 전체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
- 세종시와 충남의 협력과 제휴, 분업과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제로섬(zero-sum)게임보다는 모든 지역이 이익을 보는 포지티브섬(positive-sum) 게임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
- 세종시와 충남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함
 - 세종시 건설이 충남 모든 지역에 이익이 되는 동시에 국가전체발전에도 기여해야 함
 - 세종시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지역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
 - 세종시와 타 지역들이 차별화된 특화기능을 기반으로 상보적이고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
 - 세종시와 타 지역 간에 갈등-중복-대립이 최소화되고 협력적관계가 형성되어야 함

2. 세종시와 충남의 연계발전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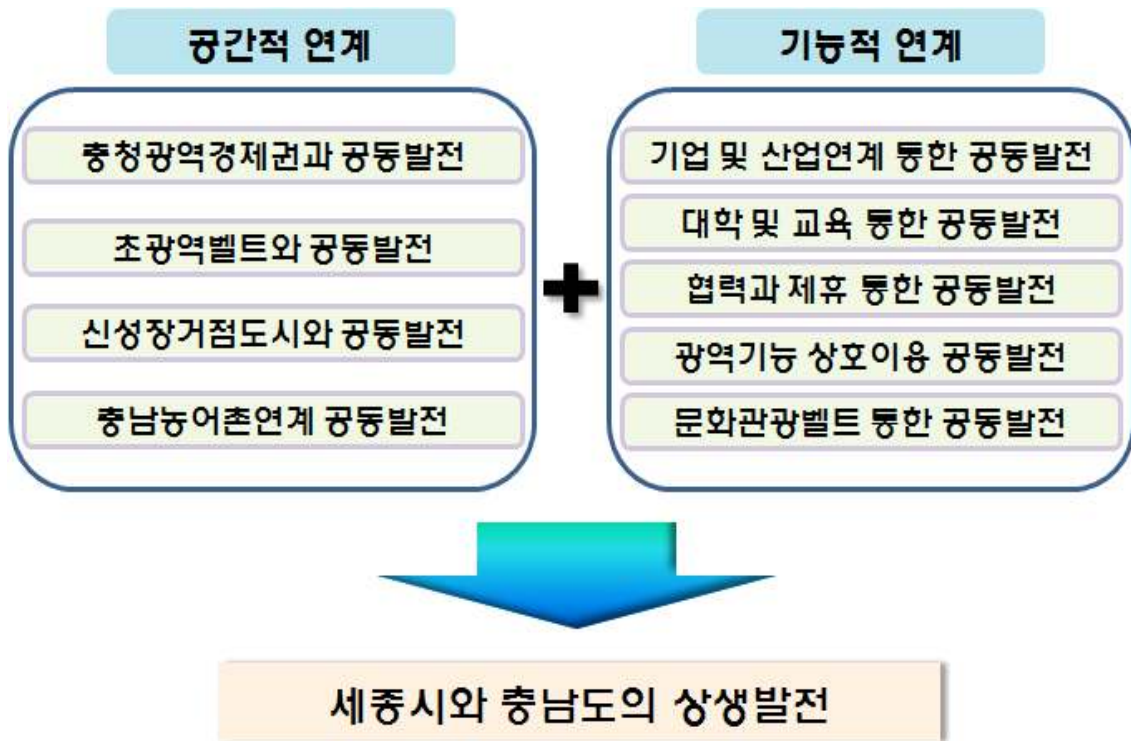
- 기존의 지역·도시개발의 효과가 제한된 공간범위에 머물러 지역간 성과공유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극복이 필요함
 - 세종시 건설이 국토전체의 균형발전 뿐 아니라, 충남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배타적이고 지역주의 극복을 통한 지역간 공동발전을 계기로 활용
- 세종시와 충남 전체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타 지역간에 상호보완적이 공동발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
 - 세종시 건설이 충남 타지역의 발전기회를 차단,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성장

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공동발전시스템 구축

- 세종시와 충남지역간 전후방연계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 및 연계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너지 창출
 - 세종시 거점기능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개별도시나 지역에서 창출하기 어려운 규모의 경제 및 연계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너지 창출
- 세종시 건설의 성과를 충남 전체로 확산하여 실질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
 - 세종시 건설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를 세종시 경계를 넘어 충남전역으로 확산시킴으로서 실질적 균형발전과 지역간 공동발전을 견인
- 세종시와 충남지역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
 -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도시개발, 주민의 삶의 질 개선, 경제사회환경 개선 등에 관한 경험을 전파하고 학습기회로 활용

3. 세종시와 충남의 연계발전 모델

- 세종시와 충남지역 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충남지역을 보완시킬 수 있는 공간적·기능적 지원체계를 구축함.
 - 공간적 지원체계는 세종시와 5+2광역경제권, 신성장거점도시, 문화권 등이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체계임
 - 기능적 지원체계는 과학연구, 교육, 국제교류 등 세종시의 거점적 자족기능을 중심으로 세종시와 충남지역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체계임
- 공간적 지원체계를 통해 세종시와 충남지역이 서로 지원, 보완하면서 공동발전함
 - 세종시를 포함하는 충청권 등 5+2광역경제권간 공동발전
 - 세종시와 충남도청(내포)신도시, 아산신도시, 태안기업도시, 경제자유구역 등 주요 개발거점간의 공동발전
 - 세종시와 충남도내 주요거점간이 기능분담 및 연계를 통한 공동발전
 - 세종시와 충남지역 농촌지역간 연계 및 도농교류를 통한 공동발전



[그림 3] 세종시와 충남의 공동발전 모델

- 기능적 지원체계를 통해 세종시의 도시기능과 충남지역 관련기능의 전후방 연계를 통한 해당기능의 경쟁력 제고
 - 세종시와 충남지역간 신성장산업의 전후방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
 - 세종시와 충남도내 대학 및 과학관련 인프라의 공동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효율성 극대화
 - 세종시와 충남지역간 과학연구, 교육, 산업, 국제교류 등과 관련한 정보 및 인력 교류 활성화
- 세종시와 충남도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간 공동발전의 물적 토대를 구축함

IV. 세종시와 충남의 공동발전 방안

1. 공간적 연계를 통한 공동발전 전략

1) 세종시와 충청광역경제권간 공동발전

- 지역발전5개년 계획상의 충청권발전 비전은 “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, 대한민국 실리콘 벨리”, 목표는 IT·BT산업의 핵심거점, 과학기술 및 인재경쟁력 강화, 과학기반형 광역거점 육성, 첨단·문화·환경 융합지역 창출임
- 충청권의 공간발전구상은 1허브 3대 산업발전축으로 설정되어 있음⁴⁾
 - 허브(Hub)는 세종시 중심
 - 첨단부품소재·에너지 발전축(북부)
 - 그린산업발전축(남부)
 - BIGT산업발전축(오송, 오창, 음성)



- 따라서 세종시와 충청권은 첨단부품소재·에너지발전산업, 그린산업, BIGT산업 등과의 공동발전을 추진하고, 대학·연구기관·기업 등과의 협력프로젝트 활성화, 대전~세종시~오송간 신교통수단 구축, 백제 및 내포문화권과의 상호협력 및 연계체제를 구축함

4) 지식경제부, 지역발전 5개년계획, 2009.12.

- 특히, 충남의 입장에서는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중심의 문화관광산업, 서해안 지역의 자동차와 기계 중심의 메카트로닉스산업, 천안·아산지역의 첨단부품소재산업, 논산·금산 지역의 그린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함



자료 : 대전발전연구원·충북개발연구원·충남발전연구원,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 충청권역 계획(안), 2010.12.10

[그림 4] 충청권 발전축

2) 세종시와 초광역벨트간 공동발전

- 충남지역에는 서해안신산업벨트와 중부내륙권 초광역벨트가 형성되어 있어 광역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함
- 세종특별자치시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게 됨에 따라 충남의 경부축선상에는 천안·아산-세종특별자치시-(대전광역시)로 연결되는 도시 및 산업회랑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

- 이에 비해 서해안지역은 경부축 중심의 개발축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될 수 밖에 없었음
- 따라서 충남도청(내포)신도시, 향만(당진향, 보령향), 내포문화권개발, 서천생태수도 육성(국립생태원, 국립해양생물자원관), 태안 및 보령 중심의 글로벌 국제관광지 등과 세종시의 연계 발전방안 모색

〈표 3〉 세종시와 충남 초광역벨트간 연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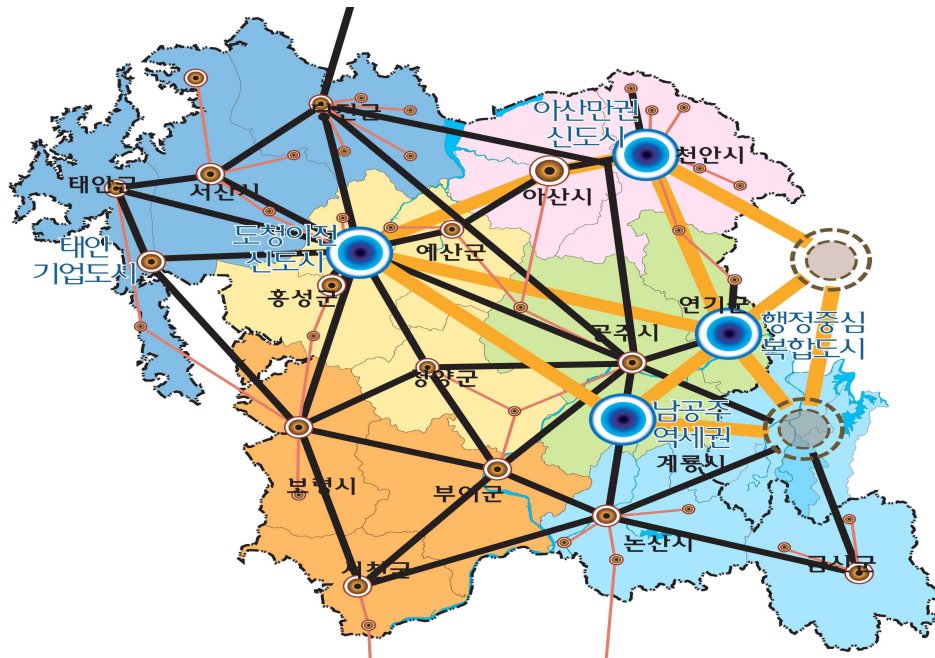
구 분	개발방향 및 주요시설	세종시 연계방안
서해안 신산업벨트	경쟁력 있는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글로벌 해양생태·문화관광벨트 - 차세대자동차산업벨트, 글로벌관광거점	세종시-서해안신산업벨트 (충남) 연계 관광상품 개발
중부내륙권	세종시, 기업도시, 혁신도시, R&D거점, 산업단지,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연계하 는 산업벨트 구축 -IT융복합산업, 신재생에너지 기술·소 재·부품산업, 첨단부품산업, BT기반의 료·의약산업, MICE산업육성	세종시-중부내륙권벨트 (충남) 연계 국방과학 및 백제문화권(공주·부여)네트 워크

3) 세종시와 신성장거점도시와 공동발전

- 세종시와 충남도청(내포)신도시, 태안기업도시,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은 공통적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,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건설중임
- 이러한 충남의 신성장거점도시들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도시 개발보다 도시의 특성에 기반하여 도시간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

〈표 4〉 세종시와 충남 신성장거점도시간 연계

구 분	개발방향 및 주요시설	세종시 연계방안
충남도청 (내포)신도시	지속가능한 충남발전을 선도하는 LOHAS 형 신도시 - Triangle City : 첨단산업도시, 건강 복지도시, 통합형 행정도시 - 생태도시, 안전도시, 유비쿼터스도시	세종시-충남도청(내포) 신도시 연계 행정 및 중 추관리 기능
태안기업도시	관광, 레저, 웰빙시설이 복합된 고품격 미래지향적 도시 - 테마파크, 생태공원, 골프장, 웰빙병 원, 첨단복합산업단지, 청소년문화체 육시설, 국제비즈니스단지, 농촌체험 형 관광단지 등	세종시-태안기업도시 연 계관광상품 개발 및 공 동마케팅
황해경제 자유구역	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협력거점 -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 -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 치 물류육성	세종시-황해경제자유구 역 도시네트워크 구축 세종시 수출입화물 부가 가치 물류네트워크 구축



자료 : 충청남도,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, 2008, p.113.

[그림 3] 신성장거점도시간 공동발전



자료 : 충청남도, 제3차도종합계획 수정계획, p.56.

[그림 5] 세종시와 충남도청신도시간 연계체계

4) 세종시와 충남 농어촌연계 공동발전

- 세종시와 충남지역 농어촌지역의 기능특화 및 연계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공동발전 체계를 구축함
 - 세종시에는 농어촌에 일자리, 교육, 문화, 쇼핑 등 도시기능을 제공하고, 농어촌지역은 세종시를 위해 여가, 관광, 전원주거, 체험학습 기회제공 등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
 - 세종시와 충남 농어촌을 포함하는 도농통합형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함
- 세종시와 충남 농어촌간 도농교류를 통한 상호학습 및 체험활동, 기술, 정보 및 인력교류, 도시기반시설 공동이용 등을 활성화함
 - 세종시와 농어촌지역의 분야별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구성 및 활성화를 지원함
- 세종시와 농어촌간 교류협력은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필요한 제도 및 재정지원을 제공함
 - 기초생활권 차원의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

- 정부에서는 “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”을 제정 및 시행
 - 충청도에서는 2009년 “충청남도농산어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”를 제정
 - 충청남도의 농촌체험마을은 양적인 측면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
 -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, 당진-상주간 고속도로, 서천-공주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대도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양호한 접근성 보유
 - 기초자치단체마다 독자적 도농교류시책, 전담부서 설치, 도농교류전문인력 양성, 귀농·귀촌지원 등을 통한 연계협력 추진

2. 기능적 연계를 통한 공동발전 전략

1) 기업 및 산업연계를 통한 공동발전

- 세종시에서 역점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전략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참고하여 이와는 차별화된 충남의 산업육성 전략을 추진함
- 세종시의 특화산업인 IT 및 ET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충남의 전략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분업적 협력체계를 구축함
- 세종시의 입지경쟁력이 높은 IT 및 ET산업을 중심으로 천안·아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 관련산업과 긴밀한 연계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창출함
- 세종시 입지대학, 기업, 연구기관과 충남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

2) 대학 및 교육을 통한 공동발전

- 세종시에 입지하는 대학과 충남도내 대학간 교수 및 학생교류, 공동연구 등을 활성화함
- 특히 천안·아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북부지역, 세종시 주변지역 등 충남전역에는 우수한 교수진과 다양한 학과를 보유한 다수의 대학들이 입지하고 있음.
- 향후 세종시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대학과 충남의 대학간에는 산학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이 발생하고 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함
- 국제비즈니스벨트 충청권입지가 실현될 경우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시설을 이용한

대규모 공동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대학 및 연구자에게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하고, 연구성과의 공유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함

3) 협력과 제휴를 통한 공동발전

- 세종시와 충청도간 협력사업은 지방자치, 지역경제, 도로·교통, 물관리 및 환경보전, 문화관광, 교육 및 R&D, 문화·관광·예술, 농어업 소득보전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.
- 세종시와 충청도는 공간적으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및 제휴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, 반드시 자치단체간 공식적 교류협력도 바람직하지만, 비공식적 교류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,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효과에 대한 인식공유, 자치단체의 전략산업 특화육성을 통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 양보 등의 노력이 요구됨
- 협력과 제휴방법으로는 합의와 협정, 공동시설 및 서비스 방식, 기능이양, 행정협의회 구성, 기관공동 설치 등이 가능함

〈표 5〉 충청도와 세종시간 협력사업 분야별 예시

사업유형	예시
물관리 및 환경보전	하천수질관리, 대기오염 규제, 토지이용규제 등
협오시설	환경시설 : 쓰레기처리시설, 분뇨처리장,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 : 묘지시설, 화장장, 양로원, 정신병원, 장애인시설 등
위험시설	주유저장시설, 도시가스저장소, 원자력발전소, qkdvO장, 군사시설 등
도로교통시설	도로, 교량, 도시전철, 주차장, 공항 등
지역경제개발	산업단지, 투자유치, 통상교류, 물류단지, 브랜드 개발 등
선호공공시설	공원, 문화회관, 복지회관, 대학, 공공기관
교육 및 R&D	조사, 연구개발, 교육훈련, 기술협력
행사개최	축제, 체육행사, Expo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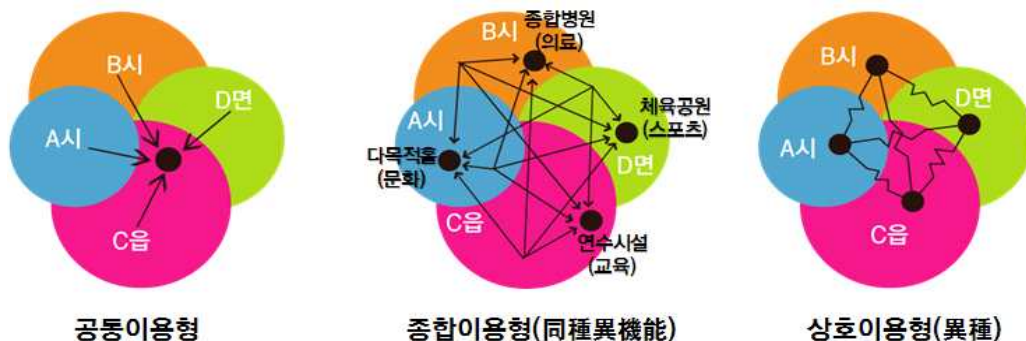
주) 위험시설은 주로 국가-특정지역(주민)간의 갈등유발시설로서 자율협력사업으로 제외

4) 광역기능의 상호이용을 통한 공동발전 전략

- 세종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거점들을 상호 연결하는 교통망 체계와 통합적인 정

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점간 공동이용, 종합이용, 상호이용 등 다양한 방식의 광역시설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여 세종시와 충청도간의 협력체계 구축함

- 공동이용형은 폐기물처리시설(소각장), 매립장 등과 같이 하나의 시설을 복수의 도시가 공동으로 설치·이용하는 형태
 - 상호이용형은 도서관 정보시스템과 같이 동일한 종류이면서 다른 기능을 지닌 도시시설을 네트워크화하고, 개개의 시설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종합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유형과 다른 종류의 도시시설을 관련 자치단체가 각각 정비하여 서로 이용하는 형태
-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시에 다목적홀(문화), B시에 종합병원(의료), C읍에 운동공원(스포츠), D면에 연수시설(교육)을 배치하고, 이것들을 하나의 예약시스템으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지역의 독자성을 살리면서도 네 개의 소도시가 일정 규모의 도시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
- 세종시의 광역적인도시계획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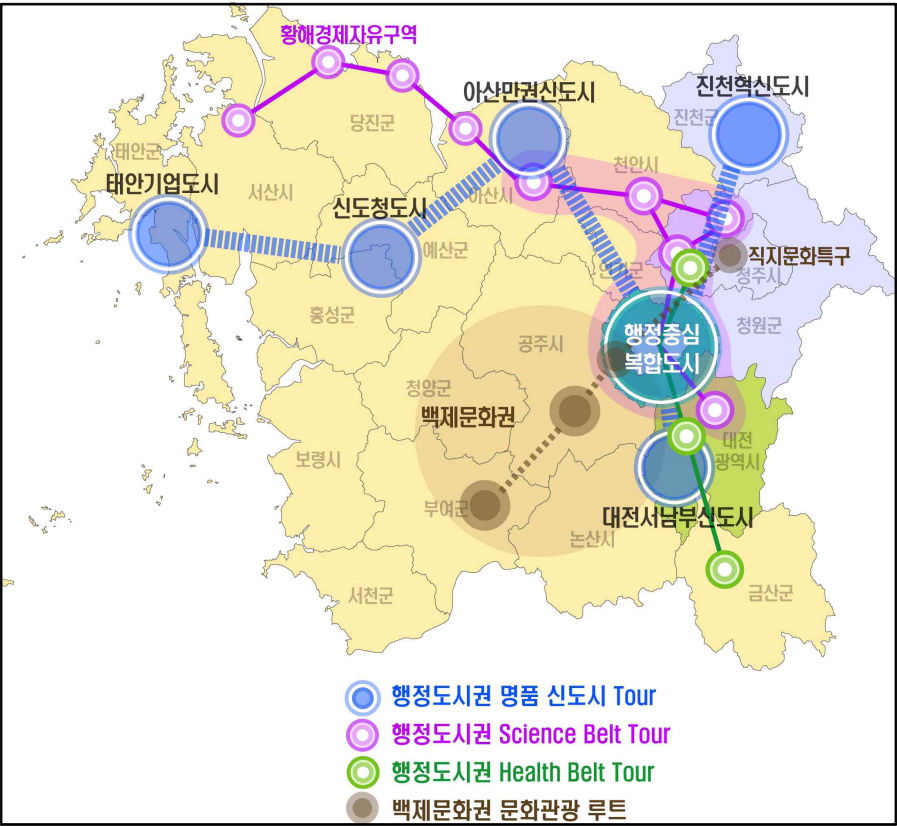


[그림 6] 광역적 기능의 공동이용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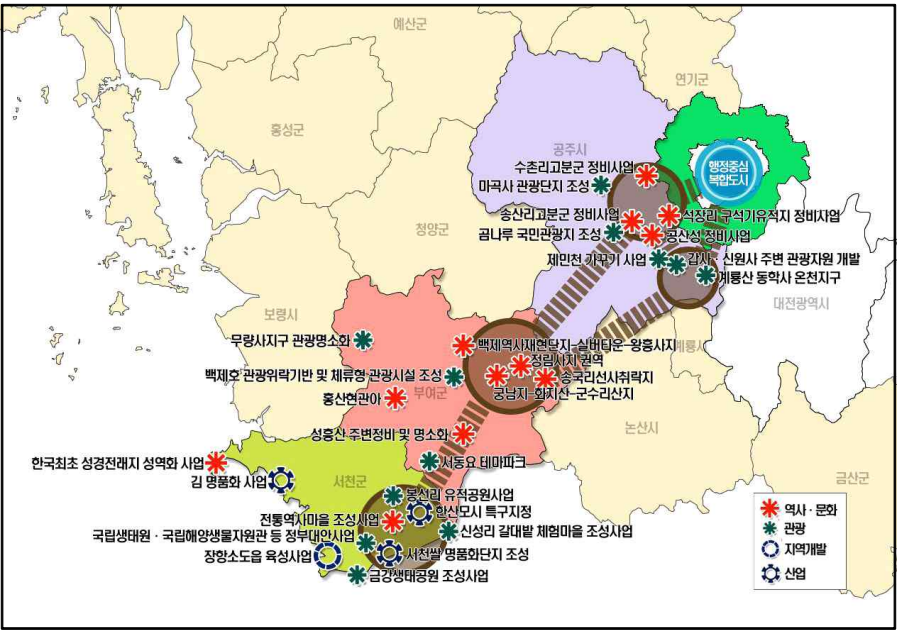
5) 문화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공동발전

-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거점 네트워크 형성, 특산물을 이용한 테마관광체계 구축 등을 통해 관광여가 수요에 대응해야 함
- 세종시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험형, 체류형 중심의 관광기반시설 및 콘텐츠를 개발함
- 충남에서는 백제문화권, 내포문화권, 유교문화권 등 개별문화권의 경쟁력을 강화

하는 한편, 문화권간 네트워크 및 관광벨트 형성을 통한 공동발전 시스템을 구축함



[그림 7] 세종시권 문화관광벨트 구상



[그림 8] 백제역사문화관광도시 구상

V. 맺음말

- 세종시 건설은 단기적으로 보면 충청남도 발전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- 그러나, 행정구역의 범위를 초월한 국가발전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, 세종시의 건설은 국토중심부로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충남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
- 세종시가 국가발전을 추동하는 신성장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특히, 충남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, 상호 연계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임
- 세종시와 충남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함
- 첫째,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기 전까지는(2012.7.1) 법적으로는 충청남도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효율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요구되고, 충남도의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,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시까지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, 행정구역의 분리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행재정 지원, 민원 등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임.
- 둘째,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부터는 세종시와 충남도는 지방자치법상 상호 동등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로 수평적인 협력관계 형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. 행정구역이 분리된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연접해 있어 생활권은 상당부분 중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기반, 교육 및 문화기능, 생활기능 등의 측면에서는 협력 및 제휴가 절대적으로 요구됨
- 이와 같은 단계적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충남간의 공동협력망 구축이 필요함. 즉,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준비단(가칭)이 공동으로 “세종-충남 상생발전위원회(가칭)”을 설립하여 상생협력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
-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전에라도, 충청남도에서는 “도청이전본부” 내에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“세종시-충남 상생발전T/F팀(가칭)”을 설치하여,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아젠다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.
- 결국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떤 형태이든 충남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협력제휴를 통한 공간적, 기능적 공동발전

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- 세종시와 충남도의 공동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당초의 세종시 행정구역(예정지역과 주변지역)을 기초로 확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(2006.11)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(2007.6), 대전·청주권광역도시계획 등의 수정내용에 충청지역과의 공동발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임

[참 고 문 헌]

- 국토연구원, 세종시 대안의 적정성 검증 및 최적대안 제시를 위한 특별과제, 2010.
- 변창흠,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세종시의 의의와 발전방안, 한국경제학회·한국지역학회 공동세미나 발표원고, 2009.11.20.
- 송두범·조봉운, 신행정수도입지에 따른 공주시의 발전전략2, 신행정수도입지기념 심포지엄자료, 공주대지역개발연구소, 2004.
- 송두범, 세종시와 충남의 지역균형발전 전략, 디트뉴스24-한국공공행정학회 공동세미나, 2020.8.
- 송두범, 충남도 지역불균형 발전해소방안, 한국공공행정학회, 충남발전연구원, 세종시 건설과 연계한 충남지역의 발전전략, 2005.
- 충남발전연구원·충청남도, 2008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, 2007.9.6
- 충청남도, 2007년 시군단위 GRDP추계결과, 2010.1.
- 충청남도,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, 2007.2.
- 충청남도,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구상, 2006.12.
- 충청남도, 도청이전신도시 기반산업구조 형성 및 인근도시와 연계발전 전략연구, 2008.
- 충청남도,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, 2008.
- 충청남도,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위한 기본구상 수립 등에 관한 연구, 2007.8
-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, 충남지역 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, 지역경제 조사연구자료, 대전충남 2008-1, 2008.
-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, 행정수도 이전논의가 충청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, 2003.
- 행정복합도시건설청, 200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, 2006.2.